

내 친구 '비 마이 유니콘'을 소개합니다.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LOGO CONCEPT



유니콘을 상징하는 뿔과 날개를 표현

“유니콘의 강직함을 상징하는 뿔과
자유롭고 유연함을 상징하는 날개를 표현”

컬러는 신비감을 주는 퍼플 컬러와
안정감을 주는 그린 컬러를 적용하여
금융에서 신비롭지만 안정적인 유니콘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코스콤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 전략 브랜드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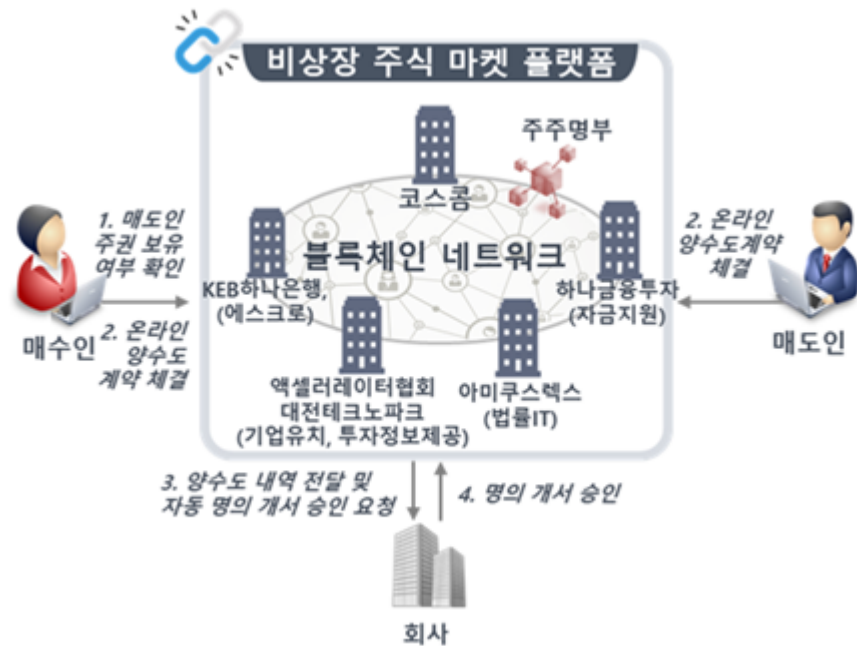
- 코스콤이 '코스콤 5.0'에 이어 사내 전략 브랜드인 '비 마이 유니콘(Be My Unicorn)'을 선보였다.
- 코스콤(사장 정지석)은 거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상장 주식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의 공식명칭을 '비 마이 유니콘'으로 명명하고 참여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비 마이 유니콘'은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공급하는 베이스캠프(Basecamp)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다.

□ 11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비 마이 유니콘’은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주명부는 엑셀 등으로 개별 PC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 되어 왔고 이 때문에 주식거래내역이 즉각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신뢰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비상장주식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채널이 부족한 사람은 주식을 살 수 없고 매도자가 실제 주주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정보도 부족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 코스콤의 ‘비 마이 유니콘’ 상에서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온라인 디지털 주주명부를 통해 인증된 주주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져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줄여서 비상장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술은 지난 5월 ‘스타트업·중기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주식 거래 지원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코스콤의 비상장거래 서비스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의성 등 주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지난 4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에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 코스콤 정지석 사장은 “코스콤 5.0에 이어 회사의 새로운 플랫폼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올해 상반기 국내는 6개에 불과했지만 코스콤과 함께 큰 꿈을 그리는 스타트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